

술술 이야기 읽기 1

시



술술 이야기 읽기 1

시

발행일 2022. 11.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엮은이 김수지 · 김인숙 · 박미라 · 서화진
편집인 서울특별시문화재교육센터 민병철, 최민음
주소 (본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도화동) 14층
전화번호 02.719.6017
홈페이지 slei.seoul.kr

본 제작물은 저작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발행했습니다.
작품별 QR 코드를 스캔하면 오디오북이 재생됩니다.

오디오북 전권



따라 읽기를 위한
오디오북



차례

1부 새봄

봄편지 3

땅감나무 5

새봄 7

바람의 고민 9

감자꽃 11

별 13

두근두근 15

초승달 17

구름을 보고 19

2부 꽃시계

- 꽃시계 23
- 개밥그릇 27
- 시계 소리 29
- 책 사랑 33
- 서울 구경 35
- 할아버지 안경 37
- 같어요 39
- 참새(未定) 43
- 망설이는 빗방울 47
- 기다리던 비 49
- 장마비 개인 날 51

3부 늦가을 편지

홍시 2 55
늦가을 편지 57
도토리들 59
수재민 61
바쁜 엄마 63
없는 살림일수록 65
어머니 약 67
버선본 69
재밌는 집 이름 73
햇보리밥 75
잠자리 77
할머니 79
할미꽃 81

4부 내가 참 좋아

난 내가 참 좋아 85

실과 바늘 89

물어봤어요 91

오줌싸개 지도 93

편지 95

눈은 눈은 97

눈꽃송이 99

1부

새봄



봄편지

서덕출

연못가에 새로 편
버들잎을 따서요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대한 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땅감나무

권태웅

키가 너무 높으면,
까마귀 떼 날아와 따 먹을까 봐,
키 작은 땅감나무 되었답니다.

키가 너무 높으면,
아기들 올라가다 떨어질까 봐,
키 작은 땅감나무 되었답니다.





새봄

서덕출

산 넘고 물 건너
 새봄이 온다
 잠자는 나무에
 새싹을 달아
 웃음을 웃기며
 새봄이 온다

강남에 제비들
 꽃 들고 오고
 강 건너 저 나라
 꾀고리 아씨
 봄노래 한 곡조
 부르며 온다





바람의 고민

이혜영

어떡하지?

바람이 풀숲에 주저앉아
고민합니다.

아무리
살금살금 걸어도
꽃잎이 흔들립니다.

어떡하지?



감자꽃

권태웅

자주 꽂 편 건 자주 감자,

파 보나 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꽂 편 건 하얀 감자,

파 보나 마나 하얀 감자.





별

문삼석

물 주지
않아도
시들잖는
꽃밭.

몇만 년
피어도
바래잖는
꽃밭.



두근두근

송재진

가시내,
기척도 없이
내 마음에 들앞더니

수제
깃발이다,
종일토록 펄럭이는.

풍속계
얌전한 날에도
나부낀다, 고 가시내!





초승달

공재동

개울물 건너다가

잃어버린

코고무신

가슴 반쪽

무너진 채

돌아오는 내 누이야,

보아라,

저 하늘에

초승달로 걸린 것을.



구름을 보고

권태웅

몽실몽실 피어나는
구름을 보고
할머니는 “저것이 모두 다 목화였으면”

포실포실 일어나는
구름을 보고
아기는 “저것이 모두 다 솜사탕이었으면”

할머니와 아기가
양지에 앉아
구름 보고 서로 각각 생각합니다.

2부

꽃시계



꽃시계

권태웅

시계 시계

꽃시계.

똑딱 소린 못 내도

척척 시간 맞추고.

나팔꽃이 피며는

언니 학교 갈 시간.

해바라기 고개 들면

소죽 퍼서 줄 시간.

분꽃이 웃으면

엄마 저녁 할 시간.

시계 시계

꽃시계.

바늘은 없어도
척척 시간 잘 맞고.





개밥그릇

박방희

봄날 빈

개밥그릇

소복소복

햇살이 한 그릇

모락모락

아지랑이랑

펑그르르 도는

바람도 한 그릇

바둑이

배고프겠다,

그렁그렁

눈물이 한 그릇.



시계 소리

안학수

친구들이 부르는 낮엔

공부하라고

“책, 책, 책, ….”

형아랑 장난치는 밤엔

일찍 자라고

“자락, 자락, 자락, ….”

아직도 멀었어도

학교 가라고

아침마다,

“지각, 지각, 지각, ….”



엄마랑 시계랑
둘인 약속했나 보다.



책 자랑

권태웅

할아버지 책 자랑은 어려운 한문 책.

그렇지만 그것은 중국의 글이고.

아버지 책 자랑은 두꺼운 일본 책.

그렇지만 그것은 일본의 글이고.

언니의 책 자랑은 꼬부랑 영어 책.

그렇지만 그것은 서양의 글이고.

우리 우리 책 자랑은 우리나라 한글 책.

온 세계에 빛내일 조선의 글이고.



서울 구경

권태웅

아기가 아저씨 얘길 듣고서,
 서울 구경 시키라고 떼를 썼지요.
 요담에 크거든 시켜 준대도,
 자꾸만 매달리며 떼를 썼지요.

아저씨가 그만 할 수 없어서,
 그래 구경 시켜 주마 대답했지요.
 아기 두 귀에다 손을 대고
 번쩍 들면서
 “보이니? 보이니?”





할아버지 안경

문삼석

몰래 써 본

할아버지 안경,

어이쿠!

어지럽다.

아하, 그래서 할아버지

으레 신문을 보실 때마다

—세상이 어지럽다.

세상이 어지러워!

끌끌끌

혀만 차셨던 거로구나!



같어요

권태웅

학교에선

같어요 같어요.

있는 집 애도

없는 집 애도,

공불 잘해야

젤이지요.

소학생

소학생.

강에선

같어요 같어요.

있는 집 애도

없는 집 애도,

햄을 잘 쳐야

젤이지요.

빨간 몸

빨간 몸.



참새(未定)

윤동주

가을 지난 마당을
 백노지인 양
 참새들이
 글씨 공부하지요

*

짝, 짹,
 입으론
 부르면서,
 두 발로는
 글씨 공부하지요,

*

하로 종일
 글씨 공부하여도

짝 자 한 자

밖에 더 못 쓰는걸,





망설이는 빗방울

박두순

들판에 가득 내린

빗방울들

들판이 넓어

너무나 넓어

어디로 갈까

망설이네요

이리저리 살피며

떠다니네요.

넓은 세상 어디쯤에

걸어가는 나처럼.



기다리던 비

권태웅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옵니다.
새벽부터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골목마다 동네 사람
나와 서서는
모두들 기뻐서 비 인삽니다.
한 방울도 귀하지요
애태우던 비,
밭에 논에 도랑에 잘도 옵니다.
삽을 들고 사람들
들에 다녀와
서로들 웃는 낮 비 얘깁니다.



장마비 개인 날

권태웅

활짝 장마비

개었습니다.

샛빨간 봉숭아

눈부십니다.

맴 맴 매미들

울어 댑니다.

인젠 장마비

개었습니다.

잠자리도 좋아서

날라 댑니다.

우리들은 고기잡이

개울 갑니다.

3부

늦가을 편지



홍시 2

강현호

가을 햇살이

소곤소곤

귓속말하고 간 뒤

자꾸만

자꾸만

감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궁금한 듯

가을바람이

애꽃은 감나무 가지만

흔들어 댄다.



늦가을 편지

권태웅

“여보세요 여보세요

편지 받아요”

치운데 떨면서 엉성거리며
바람 배달부가 찾아왔지요.





도토리들

권태웅

오롱종 매달린 도토리들,

바람에 우루루 떨어진다.

머리가 깨지면 어쩔라고

모자를 벗고서 내려오나.

날마다 우루루 도토리들,

눈을 꼭 감고서 떨어진다.

아기네 동무와 놀고 싶어

무섬도 안 타고 내려온다.



수재민

박두순

어깨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도
너무 무겁다.

머리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도
너무 아프다.



바쁜 엄마

권태웅

날마다 물 여다간 밥을 짓고
 틈틈이 실을 자선 질삼*하고
 언제나 일 바쁜 우리 엄마.

빨래도 비누질도 혼자 하고
 들밥도 이고 가고 밭도 매고
 언제나 일 바쁜 우리 엄마.

* 질삼: '길쌈'의 옛말.



없는 살림일수록

권태웅

뭣이든지 일을 하곤 밥 먹기.

많이 벌기보담은 아껴 쓰기.

언제나 식구들 몸을 튼튼히.

굶주려도 기를 쓰고 애들 공부.

괴로움 속에서도 별 쳐다보기.

언제나 식구들 한통 한마음.





어머니 약

권태옹

오월이면 단옷날엔
약쑥을 뜯고,
유월 육일 되거들랑
육모초를 뜯고,
구월 구일 기다렸다
구절초도 뜯고.

세 가지 정성껏
말리고 뒤섞어,
조청을 고와서
수수조청 고와서,
밤낮없이 속병 앓는
어머니 약 하자.



버선본

윤동주

어머니!

누나 쓰다 버린 습자지는
두었다간 뒷에 쓰나요?

그런 줄 몰랐더니
습자지에다 내 보선 놓고
가위로 오려,
버선본 만드는걸.

*

어머니!

내가 쓰다 버린 몽당연필은
두었다간 뒷에 쓰나요

그런 줄 몰랐더니
천 우에다 버선본 놓고

침 빌려 점을 찍곤
내 버선 만드는걸.



재밌는 집 이름

권태웅

읍네서 시집오면 읍네댁

청주서 시집오면 청주댁

서울서 시집오면 서울댁

집집마다 재밌게 붙는 이름.

동네 중 제일로 가까운 건

한동네서 잔치 지낸 한말댁.

동네 중 제일 먼 건 북간도댁

해방 통에 못 살고 되왔지요.





햇보리밥

권태웅

강남콩 따다가 보리밥에 놓고
 감자를 휘벼다가* 지지고 볶고
 오이 호박 따다가 맛나게 무치고,

병원에 아파 누신 일갓집 할머니
 한 상 차려 이고서 찾아뵈려 가자.
 모두 햇것 햇농사 달게 달게 잡숫게.

* 휘벼다: '후벼다'의 방언.



잠자리

강승한

노랑노랑 잠자리는
매미잠자리
냉이꽃에 잠들었다
물이들구요
뺨안뺨안 잠자리는
무당잠자리
무당집에 놀러갔다
뺨애겼대요

파랑파랑 잠자리는
풀닢잠자리
청갈닢에 집을짓다
파래지구요
알동달동 잠자리는
알락잠자리
알락꿈을 밤낮꾸고
그래겼대요



할머니

남진원

재미있는 꿈을 꾸면
 깨어나고 싶지 않던데…
 머리가 하얀 우리 할머니
 오늘은 굉장한 잠꾸러기가 되었지.
 집안 식구들이 모두 할머니 잠 때문에
 울면서 아우성이어도
 할머니는 재미있는 꿈을 꾸시나 봐.
 엄마와 아빠가 할머니 앞에서 울어도
 그 소리를 못 들은 체하신다.
 할머니,
 나처럼 개구쟁이구나.
 그만 자고 누운 떠
 눈 떠 봐, 할머니!





할미꽃

송재진

할머니 산소에서
받아 온
꽃씨 몇 틀.

마당
한 귀퉁이에서
꼬부랑히 피어났다.

밭에서
김매던 모습 그대로
집으로
도로 오셨다.

4부

내가 참 좋아



난 내가 참 좋아

정진아

땅콩, 땅꼬마 그렇게 불러도

난

내가 참 좋아.

체육 시간

장애물 통과는

다람쥐보다 빠르고,

줄 설 때

맨 앞에서

선생님 얼굴 가까이 보고,

책상 아래

쏙, 숨을 수도 있잖아.

땅콩, 땅꼬마 자꾸자꾸 불러도



난

내가 참 좋아.



실과 바늘

김숙분

실과 바늘은

딱 붙어 다녀요.

바늘이 천에서 쏘옥 나오면

실도 따라서 쏘옥 나와요.

하지만 실은 한 땀 한 땀

옷감 속에 남아야 해요.

한 땀 한 땀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해요.



물어봤어요

권태웅

나는 자꾸만 물어봤어요
옛 살던 마을 사람 찾아왔기에.

인젠 따가새도 울겠지
까치 새끼도 다 컸겠지
모심기할 때도 가까웠겠지

나는 가만히 눈 감았어요
야릇한 그리움을 지워 볼랴고.
그러나 도무지도 시원치 못해
다시 새로 하나둘 물어봤어요.



오줌싸개 지도

윤동주

빨래줄에 걸어 논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 쌈 그린 지도

*

꿈에 가 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돈가?
 돈 벌러 간 아바지 계신
 만주 땅 지돈가?





편지

윤동주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이 왔습니다.

*

한 봉투에

눈을 한 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부치지 말고

말숙하게 그대로

편지를 부칠가요

*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눈은 눈은

서덕출

눈은 눈은 하늘에 설탕일까요
설탕이면 달잖고 이만 시릴까?

눈은 눈은 하늘에 소금일까요
소금이면 짜잖고 이만 시릴까?

눈은 눈은 하늘에 떡가루일까요
떡가루면 떡 장사 걷어 안 갈까?

눈은 눈은 하늘에 분가루일까요
분가루면 색씨가 걷어 안 갈까?





눈꽃송이

서덕출

송이송이 눈꽃 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피어 오는

하얀 꽃송이

나무에나 뜰 위에나

동구 밖에나

골고루 나부끼니

보기도 좋네

송이송이 눈꽃 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피어 오는

하얀 꽃송이

크고 작은 오막집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나부끼니

보기도 좋네

엮은이

김수지

이소문해력연구소

김인숙

(사)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박미라

열린시민터 해봄

서화진

(사)푸른사람들 부설 푸른어머니학교